



IN USA
INSIDER
GUIDES
from VisitTheUSA

남부의 음악적 뿌리

텍사스주 - 루이지애나주 - 미시시피주 - 앨라배마주 - 테네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 조지아주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남부의 음악적 뿌리



텍사스주 댸러스 출발, 텍사스주 오스틴 도착

텍사스주 오스틴 출발, 샌안토니오 경유, 휴스턴 도착

텍사스주 휴스턴 출발, 포트아서 경유,
루이지애나주 라피엣 및 뉴올리언스 도착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출발, 배턴루지 경유,
미시시피주 나체즈 및 인디애놀라 도착

미시시피주 인디애놀라 출발, 투펄로 경유,
앨라배마주 버밍햄 도착

앨라배마주 버밍햄 출발, 테네시주 채터누가 도착

테네시주 채터누가 출발, 테네시주 게틀린버그 도착

테네시주 게틀린버그 출발, 테네시주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레이트스모키산맥 경유, 조지아주 애틀랜타 도착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도착

소요 시간: 3시간 15분, 거리: 313km

소요 시간: 4시간 15분, 거리: 445km

소요 시간: 5시간 45분, 거리: 576km

소요 시간: 6시간, 거리: 547km

소요 시간: 3시간 45분, 거리: 468km

소요 시간: 2시간 15분, 거리: 236 km

소요 시간: 2시간 45분, 거리: 247km

소요 시간: 4시간, 거리: 317km

소요 시간: 5시간, 거리: 482km



텍사스주 댈러스

1일 차

이번 여행은 세계적인 대도시 댈러스에서 시작해보세요. 특히 여러 블록을 아우르며 텍사스주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지역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딥 엘룸(Deep Ellum)으로 진행해 30개가 넘는 라이브 음악 공연장을 방문해보세요. 초대형 범 팩토리(Bomb Factory)에서 스타 가수를 만나보고 피아노가 놓인 바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해보고 거리 예술을 감상한 후 동네 카페의 야외에 앉아 음식을 드셔보세요. 이 모든 것은 1920년대 블라인드 레먼 제퍼슨(Blind Lemon Jefferson), 허디 ‘레드 벨리’ 레드베터(Huddie ‘Lead Belly’ Ledbetter)와 베시 스미스(Bessie Smith) 등 시대의 아이콘과 팬들이 블루스와 재즈의 메카, 딥 엘룸으로 몰려오며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매장이 텅텅 비며 경제적으로 쇠퇴했으나 1980년대 들어 음악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트리스(Trees) 콘서트를 개최해 너비나(Nirvana), 펄 잼(Pearl Jam) 라디오헤드(Radiohead) 등 당대 최고의 밴드가 찾아왔고 이 지역은 점점 번성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지가 되어 음악을 듣고 현지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쇼핑과 먹거리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대로 경험해보려면 4월에 3일 동안 거리를 수놓는 파티인 딥 엘룸 아츠 페스티벌(Deep Ellum Arts Festival) 기간에 방문해보세요.

숙박: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2박

텍사스주 댈러스 출발, 텍사스주 오스틴 도착

● ● ● ● ● ● ● 소요 시간: 3시간 15분, 거리: 313km

3일 차

오스틴에서는 요일과 상관없이 밤이 되면 컨트리, 블루스, 락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0명이 넘는 뮤지션들이 다양성을 뽑내는 이 도시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왜 오스틴에 ‘세계 라이브 음악의 수도’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1970년대 중반 시작한 TV 쇼 ‘오스틴 시티 리미즈(Austin City Limits)’는 지금도 재니스 조플린(Janis Joplin), 제임스타운 리바이벌(Jamestown Revival) 및 스티비 레이 본(Stevie Ray Vaughan) 같은 뮤지션이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던 여행지를 조명합니다. 1987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뮤직 페스티벌(South by Southwest Music Festival)이 시작되면 전 세계에서 뛰어난 뮤지션과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듭니다. 오스틴에는 세계 여행 책자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파라마운트 극장(Paramount Theatre) 같은 대형 공연장은 물론 콘티넨탈 클럽(Continental Club), 사하라 라운지(Sahara Lounge) 같은 클래식한 공연장이 있으며, 누크 원형극장(The Nook Amphitheater)에서는 현지 밴드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레이니 스트리트(Rainey Street), 식스스 스트리트(Sixth Street) 및 사우스 콩그레스(South Congress) 등 인기 많은 엔터테인먼트 지역도 찾아가 보세요.

숙박: 오스틴에서 2박

텍사스주 오스틴 출발, 샌안토니오 경유, 휴스턴 도착

● 소요 시간: 4시간 15분, 거리: 445km

5일 차

휴스턴으로 가는 길에 샌안토니오를 경유해 생생하고 역동적인 음악 문화를 경험해보세요. 테하노와 헤비메탈 장르가 유명한 이 도시에는 새도우랜드 볼룸(Shadowland Ballroom)과 플라자 호텔(Plaza Hotel) 등 재즈가 깊이 뿐리나린 곳도 있습니다. AT&T 센터(AT&T Center)와 페이퍼 타이거(The Paper Tiger) 같은 대형 공연장이 여행 코스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보다 작은 클럽들 또한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어 모든 장르의 라이브 음악을 선사하며 밤을 밝힙니다. 이제 라일 로벳(Lyle Lovett), 지지 탑(ZZ Top) 및 데스티니스 차일드(Destiny's Child) 같은 아티스트들이 커리어를 시작한 곳으로 유명한 휴스턴으로 이동해보세요. 오스틴에서 시작해 지금은 메인 스트리트에 크게 자리 잡은 콘티넨탈 클럽은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밤을 보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100년 전 폴란드식 댄스홀이던 역사적인 피츠제럴즈(Fitzgerald's)는 수요일마다 신예 뮤지션에게 마이크를 내주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유명 밴드가 라이브 공연을 선보입니다. 휴스턴에서 가장 최근 생긴 명소 가운데 하나인 화이트 오크 뮤직 홀(White Oak Music Hall)은 2016년 개관한 이후 더 러미니어스(The Lumineers)를 비롯해 최고의 밴드가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실내는 물론 야외까지 세 개의 무대가 있으니 한 곳을 선택해 아름다운 도심과 리틀 화이트 오크 밴유(Little White Oak Bayou)의 절경도 감상해보세요.

숙박: 텍사스주 휴스턴

IN USA
INSIDER
GUIDES
from VisitTheUSA



텍사스주 브로큰스포크



루이지애나주 스포티드 캣 뮤직 클럽

텍사스주 휴스턴 출발, 포트아서 경유, 루이지애나주 라피엣 및 뉴올리언스 도착

● ● ● ● ● 소요 시간: 5시간 45분, 거리: 576km

6일 차

멕시코만 연안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다 포트아서에 도착하면 걸프 코스트 박물관 (Museum of the Gulf Coast)을 방문해 이 지역 출신인제니스 조플린(Janis Joplin)을 비롯해 클라렌스 ‘게이트마우스’ 브라운(Clarence ‘Gatemouth’ Brown), 지지 탑 및 에드가 원터(Edgar Winter)와 조니 원터(Johnny Winter) 같은 멕시코만 출신 아티스트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명예의 전당을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는 18세기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정착하며 세운 루이지애나주의 중심 도시이자 케이준 컨트리(Cajun Country)의 수도인 라피엣으로 가보세요. 현지 공연장에서 케이준과 자이데코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의 공연을 관람해보거나 다양한 문화 축제 중 하나에 참여해 시간을 보내보세요. 다음 목적지는 음악이 깊이 뿌리내린 뉴올리언스입니다. 클럽에서는 물론 거리에서도 재즈와 아프리카계 쿠바 음악부터 딕시랜드 재즈와 리듬앤클루스 및 자이데코까지 모든 장르의 선율이 흐릅니다. 프리저베이션 홀(Preservation Hall)에서는 작은 공간에서 멋진 뮤지션들이 전통 뉴올리언스 재즈를 연주합니다. 일찍 도착해서 스탠딩 공간을 이용하거나 한정된 좌석을 미리 구매하세요. 또 하나의 라이브 음악 허브인 프렌치맨 스트리트(Frenchmen Street)에는 밤마다 재즈 밴드가 세 팀이나 무대를 꾸미는 스포티드 캣 뮤직 클럽(The Spotted Cat Music Club)과 같은 공연장이 즐비합니다. 뉴올리언스 국립 재즈 역사 공원(New Orleans Jazz National Historical Park)을 방문해 재즈의 탄생지로 유명한 이 도시에 대해 알아보세요. 음식과 칵테일 문화를 빼놓고 뉴올리언스를 논할 수 없습니다. 야외 카페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세프들은 슈가 파우더를 뿐만 베네, 강한 향신료의 잠발라야, 훈제 양두유 소시지와 같은 현지 음식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재즈 & 헤리티지 페스티벌(Jazz & Heritage Festival)이나 마디 그라(Mardi Gras)가 열리는 시기에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속박: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2박

INSA
GUIDES
from VisitTheUSA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출발, 배턴루지 경유, 미시시피주 나체즈 및 인디애놀라 도착

● 소요 시간: 6시간, 거리: 547km

8일 차

미시시피 블루스 트레일(Mississippi Blues Trail)을 타고 미시시피강(Mississippi River) 북쪽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의 매력적인 문화를 탐방하기에 완벽한 허브인 주도 배턴루지에서 들러보세요. 배턴루지는 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무엇보다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축물을 살펴보고 독특한 문화를 탐방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제 미시시피 블루스 트레일로 돌아와 나체즈, 빅스버그 및 인디애놀라로 구성된 일명 미시시피강 삼각주(Mississippi Delta)를 여행해보세요. 인디애놀라에서는 B.B. 킹 박물관(B.B. King Museum)으로 향해 전설적인 가수이자 기타 연주자를 기리는 장소에서 블루스 음악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목화밭에서 일하고 쥬크 조인트에서 음악을 즐기며 어떻게 블루스라는 장르를 창조했는지 알아보세요.

숙박: 미시시피주 인디애놀라

미시시피주 인디애놀라 출발, 투펠로 경유, 앨라배마주 버밍햄 도착

● 소요 시간: 3시간 45분, 거리: 468km

9일 차

인디애놀라를 뒤로하고 미시시피 블루스 트레일을 달리다 북쪽으로 잠시 우회해 클리블랜드의 도커리 팜스(Dockery Farms)에 들러 블루스 음악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세요. 1900년대 초 블루스의 창시자 찰리 패튼(Charlie Patton)을 비롯해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다음으로 투펠로로 향해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의 탄생지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로큰롤의 황제’가 태어난 집은 명소가 되었고 교회와 박물관 및 공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도 시내 나이트클럽에서 라이브 재즈를 선보이는 버밍햄을 향해 달려 앨라배마 재즈 명예의 전당(Alabama Jazz Hall of Fame)에 이름을 옮린 젊은 뮤지션 오나 왓슨(Ona Watson)이 운영하는 오나스 뮤직 룸(Ona's Music Room) 등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전통적인 체험을 원하신다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쥬크 조인트 가운데 한 곳으로 베서머 인근에 자리한 갑스 플레이스(Gip's Place)를 찾아가 유명한 아티스트와 현지인들의 연주를 감상해보세요.

숙박: 앨라배마주 버밍햄





앨라배마주 버밍햄 출발, 테네시주 채터누가 도착

● ● ● ● ● ● ● 소요 시간: 2시간 15분, 거리: 236 km

10일 차

버밍햄을 떠나기 전에 아르데코 양식이 돋보이는 앨라배마 재즈 명예의 전당을 찾아가 앨라배마주와 관련된 재즈 아티스트를 기리는 박물관을 살펴보세요. 내부에 자리한 카버 극장(Carver Theatre)에서는 멋진 공연이 펼쳐집니다. 넷 킹 콜(Nat King Cole), 라이오넬 햄프턴(Lionel Hampton) 및 뒤크 엘링턴(Duke Ellington) 같은 전설적인 인물을 통해 재즈 음악의 역사를 알아보는 투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두 시간을 달려 조지아주로 넘어가기 전에 베시 스미스(Bessie Smith)가 태어나고 어서(Usher)가 자란 채터누가에 가보세요. 2017년 개관한 관광 명소인 송버즈 기타 박물관(Songbirds Guitar Museum)에 들러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시대를 풍미한 기타를 살펴보세요.

숙박: 테네시주 채터누가

테네시주 채터누가 출발, 테네시주 게틀린버그 도착

● ● ● ● ● ● ● 소요 시간: 2시간 45분, 거리: 247 km

11일 차

테네시주는 깊고 풍부한 음악의 역사를 자랑하며, 게틀린버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여행지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아티스트와 음악 팬들이 스모키 마운틴 송라이터스 페스티벌(Smoky Mountain Songwriter's Festival)이 열리는 게틀린버그로 찾아옵니다. 음악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의 작곡가들이 상을 거머쥐기 위해 겨루니다. 멋진 음악을 선사하는 공연장 외에도 게틀린버그에는 종류 공장이 있으니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종류주를 음미해보세요. 조식과 브런치를 제공하는 아트리움 팬케익스(Atrium Pancakes)에서 홈메이드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보세요. 사과 팬케이크나 그레이비 소스가 나오는 시골식 스테이크를 드셔보세요. 분위기를 바꿔 피전 포지에 있는 돌리우드(Dollywood) 테마파크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다양한 쇼와 볼거리들을 즐겨보세요. 이 테마파크 안에는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하는 방문객을 위해 숙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컨트리 스타 돌리 파튼(Dolly Parton)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되는 돌리스 홈커밍 퍼레이드(Dolly's Homecoming Parade)에도 참여해보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여행자라면 매년 돌리우드에서 열리는 바비큐 앤 블루그래스 페스티벌(Barbeque and Bluegrass Festival)에 참여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숙박: 테네시주 게틀린버그 또는 피전 포지에서 2박

테네시주 게틀린버그 출발, 테네시주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레이트스모키산맥 경유, 조지아주 애틀랜타 도착

● ● ● ● ● 소요 시간: 4시간, 거리: 317km

13일 차

게틀린버그를 마지막으로 블루스 트레일을 벗어나 그레이트 스모키산맥 국립공원(Great Smoky Mountains National Park)을 탐험해보세요. 테네시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아우르는 이 공원에는 숲과 들꽃이 가득한 초원을 누비는 하이킹 트레일 및 폭포와 눈부신 전망대로 이어지는 개울과 강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스모키를 떠나 이제 아테네의 대학 마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B-52s, R.E.M. 같은 밴드의 발자취가 영원히 남아있는 조지아주로 이동해보세요. 1910년 보드빌 극장으로 문을 연 몰튼 극장(Morton Theatre)은 한때 드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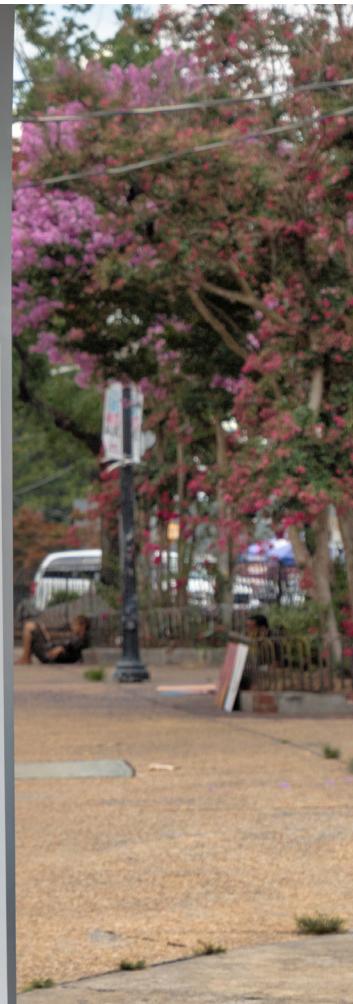


엘링턴과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 등 음악의 거장이 공연했던 곳으로, 지금도 다양한 공연이 무대를 장식합니다. 이제 길을 더 달려 현대적인 힙합과 리듬앤텀포로 유명한 여행지, 애틀랜타로 가보세요. 리틀 파이브 포인츠(Little Five Points)는 오랜 시간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버라이어티 플레이하우스(Variety Playhouse)는 라이브 음악과 이벤트를 관람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숙박: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2박



조지아주 리틀 파이브 포인트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도착

● ● ● ● ● 소요 시간: 5시간, 거리: 482km

15일 차

찰스턴은 다채로운 색상과 정교한 철제 구조물이 특징인 남북전쟁 이전 시대의 주택으로 유명합니다. 돌이 깔린 거리를 걸으며 이런 주택과 정원 및 찰스턴의 역사가 서린 수변 산책로인 배터리(Battery)를 돌아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900년대 초반 래그타임(Ragtime)이 유행하던 시기에 인기를 누리고 1920년대 재즈의 비트에 리듬을 불어넣은 찰스턴 댄스 덕분에 찰스턴이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미상(Grammy Award)을 수상한 가수 다리우스 러커(Darius Rucker)는 “Charleston, SC 1966”이라는 앨범도

발매했습니다. 1990년대 리노베이션한 찰스턴 뮤직 홀(Charleston Music Hall)은 타워 디포(The Tower Depot)로도 유명한데, 이 도시 최고의 라이브 음악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붓한 저녁 시간을 원하신다면 역사가 숨 쉬는 다운타운의 바 또는 해변의 술집을 찾아가 재능 있는 뮤지션들이 선보이는 무대에 빠져보세요.

숙박: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IN USA
INSIDER
GUIDES
from VisitTheUSA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